

# “힘들고 어려운 시절 선물 같은 작품이 되길”

갤러리 이디 기획전 개막  
중견작가 11인 초청 전시  
내년 1월 15일까지 열려  
“예술도 이젠 워드 코로나  
내년에는 더 좋은 기운을”



16일 갤러리 이디에서 ‘그리고 프레젠티(Present)’ 기획전의 막이 올라 관람객들이 김현숙, 홍진숙, 문창배 등 참여 작가와 함께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제주 도심 전시장에 걸린 그림 한 점이 이 사회에 자그만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전해졌다. 16일 막을 올린 한라일보 1층 갤러리 이디(ED)의 ‘그리고 프레젠티(Present)’ 전시다.

2020년의 마지막이자 2021년 새해를 여는 기획전인 이번 전시에는 제주에서 활동하는 중견작가 11인을 초청했다. 평면 분야의 김현숙, 문창배, 박성진, 손일삼, 안진희, 유창훈, 이옥문, 이창희, 홍진숙 작가와 조각가인 강민석, 이승수 작가다. 저마다 자기만의 색깔로 제주 미술계에 이름을 알리고 있는 작가들로 제주대 미술학과에 재직하거나 전업 작가로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는 이들이다.

출품작은 30점이 넘는다. 김현숙의 ‘화란춘성-침묵하는 봄’ 연작, 문창

배의 ‘시간-이미지’ 연작, 박성진의 ‘사려니-가을’, 손일삼의 ‘제주바다-인상’, 안진희의 ‘점점등화’, 유창훈의 ‘한라산-안세미오름에서’, 이옥문의 ‘성산포에서 일출봉’, 이창희의 ‘제주목’, 홍진숙의 ‘잎 (leaves)-우도’, 강민석의 ‘하얀 평원’, 이승수의 ‘제주를 품다’ 등을 볼 수 있다.

이날 갤러리를 찾은 김현숙 작가는 이즈음의 코로나 확산 상황을 언급한 뒤 “경각심을 일깨우는 오늘”이라며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전시가 제주도

민과 관광객들에게 조금이나마 선물 같은 작품으로 다가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진숙 작가는 “문화예술도 이젠 코로나와 함께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하루빨리 이 상황이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이라는 간절한 소망을 밝혔다. 내년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문창배 작가는 “앞으로도 제주 작가들을 위한 이같은 전시가 더 많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미라 갤러리 이디 관장은 이 전시에 대해 “코로나19로 올 한 해 힘

든 시기를 건너왔는데 무사히 2020년을 넘기고 2021년에는 한층 좋은 기운이 왔으면 하는 생각으로 ‘선물’이라는 타이틀을 붙였다”며 “제주에서 수준 높은 작품 세계를 보여주는 작가들을 선정해 마련한 전시인 만큼 도민들이 편한 시간에 방문해 관람했으면 한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전시는 내년 1월 15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이어진다. 월요일은 문을 닫는다. 문의 750-2543.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청춘, 꿈꾸다 청소년활동 릴레이 인터뷰

### “진심 담긴 활동 가고 싶은 길 열어줬다”

#### ③ 예비 부서관 오영준

청소년운영위원장 맡아  
한 뼉 더 성장하는 기회  
청소년성취포상제 동장  
리더십 등 진로에 큰 힘



예비 부서관 오영준 학생은 안덕청소년문화의집에서 또 다른 성장 기회를 만들어 33 재학 중에 원하던 꿈을 이뤘다.

고등학교 3학년이어서 으레 수능을 치렀으리 생각했다. 뜻밖에도 그는 “시험을 안 봤다”고 하면서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예비 부서관이 된 오영준(한림고 3) 학생이다. 이미 11월 30일 해군 부서관 합격 통보를 받은 덕에 그는 흥분하게 수능의 계절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같은 학교 친구들이 절반은 취업에 나서지만, 절반은 대학 진학을 목표로 공부한다고 했다.

해군에 복무하는 외삼촌의 권유로 고교에 진학해 부서관 시험을 준비했는데, 이 과정에 서귀포시 안덕면 안덕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이 큰 도움이 되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를 통해 리더십을 배웠고 열정을 키웠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요리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청소년문화의집을 꼭 이용했어요. 중학교 1학년이 되어서는 봉사 활동을 위해 청소년운영위원회에 가입했죠. 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내성적인 성격이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엔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몰랐다. 선배들의 일을 도와주거나 정기회의에 참석하는 정도였다. 직접 운영 계획을 짜고 실천하면서 청소년들이 지역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다. 여러 행사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일도 재미있었다. 지금도 그는 중학교 시절에 여수 엑스포 행사장에서 열렸던 전국 청소년들이 지역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다. 여러 행사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일도 재미있었다. 지금도 그는 중학교 시절에 여수 엑스포 행사장에서 열렸던 전국 청소년들이 지역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다. 여러 행사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일도 재미있었다.

그는 특히 청소년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본보기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동장’에 도전했다. 성취포상제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자기 성장 프로그램으로 동장은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탐험 등 4개 영역의 활동을 6개월간 일정 시간씩 꾸준히 해야 한다. 그는 자전거 타기, 승강기 기능사 자격증 취득, 클린하우스 청소, 한라산 둘레길 걷기와 지도 없이 길 찾기 등을 정해 반년 동안 맘을 즐겼고 마침내 동장을 받았다.

부서관에 지원하면서도 그는 끈기를 보여줬다. 5kg 정도만 빼도 체력 등급을 충분히 맞출 수 있었지만 그는 무려 20kg의 체중을 줄였다.

전기병으로 해군 부서관의 길을 걷게 된 그는 지난 14일 임명 배들의 일을 도와주거나 정기회의에 참석하는 정도였다. 직접 운영 계획을 짜고 실천하면서 청소년들이 지역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다. 여러 행사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일도 재미있었다. 지금도 그는 중학교 시절에 여수 엑스포 행사장에서 열렸던 전국 청소년들이 지역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후배들에게 가까운 청소년문화의집을 찾아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등을 경험해 보라고 권한다. 다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봉사 시간을 채우려 하는 등 마음의 근육이 탄탄해지는 시간을 보냈다.

글·사진·진선희기자

## 백두산호랑이 제주 박물관에 온다

### 민속자연사박물관 특별전 박제 표본과 생태 영상 등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관장 노정래)은 올해 마지막 기획

전시로 ‘백두산호랑이 한라산에 온다’ 특별전을 이달 19일부터 내년 3월 28일까지 펼친다.

이번 특별전은 호랑이에 대한 생태, 분포, 문화, 유물, 체험 콘텐츠를 바탕으로 산중호걸, 옹호상박, 호시

탐탐, 호시우행 등 4개의 주제로 구성됐다. 백두산호랑이 박제 표본, 생태 사진과 영상, 산신도, 호자도, 삼호도, 옹호상량문 대들보, 조형물 등 100여 점을 선보인다.

박물관은 이번 특별전을 위해 서울 대공원과 제주대학교박물관으로부터 호랑이 박제 표본과 유물을 대여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새

해 소망 소원지 쓰기 코너도 둔다.

노정래 관장은 “호랑이를 통한 국난을 물리치려 했던 선인들의 기록과 지혜를 통해 코로나 사태로 일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자 백두산호랑이를 초청했다”며 “이번 특별전이 인간과 야생동물과의 상생의 길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진선희기자

## 문화가 쏠리

### 현인갤러리 7인 초대전

현인갤러리(관장 김형무)가 ‘여류화가 7인 초대전’을 열고 있다.

이번 초대전은 ‘봄을 기다리며’란 제목을 달았다. 참여 작가는 박지은, 김선정, 박찬숙, 서미자, 성남숙, 장선자, 정갑숙씨다. 전시회 제목이 말해주듯 이들 초대 작가들은 찬 계절 속에 화사한 봄빛의 기운이 전해지는 작품을 펼쳐놓고 있다. 전시는 이달 27일까지 이어진다. 현인갤러리는 제주시 도령로 이화오피스텔 2층에 있다. 문의 747-1500.

### 공공언어 바로잡기 공모전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원장 배영환)은 이달 22일까지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공공언어 바로잡기’ 공모전을 연다.

이번 공모전은 간판·현수막·홍보물 등 가운데 어떤 규범에 맞지 않게 쓰인 공공언어의 사진을 직접 촬영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간단히 작성한 후 온라인(https://forms.gle/zewjttAsEmkWXKPD9)으로 접수하면 된다. 1인당 최대 3개까지 응모가 가능하다. 문의 754-2712.

### 국제사진공모전 17점 입상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김대근)는 최근 제12회 제주국제사진공모전 입상작 17점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13주년과 세계유산축전 개최 기념으로 열렸다. 지난 6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응모작을 접수한 결과 총 21개국에서 6792점의 사진이 접수됐다. 심사 결과 대상은 현홍영(제주)씨의 ‘설원에 노루 나들이’가 차지했고 금상은 차용현(전남)씨의 ‘성산일출봉 안개 일출’이 뽑혔다.

### 수험생 위한 힙합·댄스

제주학생문화원(원장 강혜순)은 고3 수험생을 위한 힐링 타입 프로그램으로 ‘소중함 너, 온 세상을 가져봐! 힙합과 댄스 공연’을 펼친다.

이 공연은 16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사진 녹화해 18일 오전 10시 제주도교육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 힙합 가수 녀삼, 던밀스의 공연에 이어 제주중앙고 동아리 ‘스카이팀’의 댄스가 마련된다. 제주학생문화원은 “그동안 고생한 수험생들의 지친 몸과 마음이 치유되길 바란다”고 했다.

**novita**  
A KOHLER COMPANY

## 제주노비타 제주총판 비데렌탈

**BD-AFE50N**



3년 약정  
무상 A/S

- 4개월 점검 및 스팀청소, 비데필터교환
- 래변, 순간온수방식, 어린이기능

**월 16,900원**

**BD-N530A**



3년 약정  
무상 A/S

- 4개월 점검 및 스팀청소, 비데필터교환
- 공기방울리듬세정, 접이식조작부

**월 19,900원**

**BD-N443(리모컨)**



3년 약정  
무상 A/S

- 4개월 점검 및 스팀청소, 비데필터교환
- 리모컨형, 탈취, 공기방울세정

**월 24,900원**



novita 제주점 (구,제민일보 맞은편)

문의 | 제주노비타 제주총판 064)758-0991 제주시 연삼로17(연동)